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0% 늘었다

〈지난해 대비〉

상반기 23만건 중 14만여건 수용
개인차주 1인당 평균 0.85%p 혜택

롯데카드 82% 승인 '수용률 최고'
감면액 '최다'는 삼성카드 18.8억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금리인하, 수용 건수당 이자 감면액 등이 공식항목에 추가된 만큼 수용률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60.7%다. 총 23만250건 중 14만1121건을 수용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동기(40.3%)와 비교하면 20.4%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사 가운데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카드였다. 1만3062건 중 1만775건(82.49%)을 승인했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비씨카드다. 3729건 중 637건(17.08%)을 수용하는 데 그쳤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60%대로 집계됐다. /뉴시스

다. 평균 금리인하폭 또한 0.12%p로 업계에서 가장 낮았다.

이자 감면액을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가장 높았다. 총 18억8777만원을 절감해줬다. 2위인 현대카드(9억2468만원)와 비교해도 2배 넘는 이자비용을 줄여줬다. 이어 ▲롯데카드(8억2844만원) ▲신한카드(6억2475만원) ▲KB국민카드(1억7449만원) ▲하나카드(1억2000만원) ▲우리카드(5539만원) ▲비씨카드(135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수용률은

34.8%로 카드사 대비 25.9%p 낮았으며 인터넷은행의 수용률은 22.0%에 머물렀다. 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수용률은 각각 63.9%, 44.9%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상승한 배경으로 올해 저신용차주를 대거 흡수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시장에선 승진, 이직 등의 요인으로 소득이 상승했다면 대한대출을 통해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각 사별 취급 방침은 모두 다르지만 신용점수보다 소

득수준을 높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귀띔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상승 요인을 두고 관련 마케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사별로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청구서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PC와 모바일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반기 신용카드사 개인 신용대출 차주 1인당 평균 0.85%p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업계 최하위를 기록한 비씨카드는 점진적으로 수용률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비씨카드는 지난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취급했다. 타사 대비 금융서비스 취급 기간이 짧은 만큼 관련 방침을 강화해 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소폭이지만 작년 하반기 대비 수용률이 상승했다"면서 "앞으로도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온실가스 저감 대출 신한은행 1.2조 공급

신한은행이 지난달 말까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대출'을 1조2000억원을 공급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환경부와 함께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공급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는 기업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대출과 동시에 이자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수혜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및 목표관리 적용업체로, 이 지원 관련비용은 신한은행과 환경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최초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대출을 공급했다. 현재까지 제조, 화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공급된 금액은 총 1조 221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진정성 있는 녹색경제활동을 선별하고 금리, 한도 등의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녹색금융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반환보증에 등기변동 알림까지… 전월세대출의 혁신”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보증금 90% 한도, 최대 2억 가능

앞으로는 토스뱅크에서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변동될 경우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5일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 고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하게 됐다"며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때 마다 불안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대출시 '반환보증' 신청,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가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토스뱅크는 우선 전월세보증금대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

료된 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상품이다.

홍 대표는 "지금까지 세입자는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수십~수백만원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최저 보증료를 적용하기로 해,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대상은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으로 보증료율은 연 0.02~0.04%이다. 연말까지 반환보증을 가입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 무료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등기변동알림을 적용해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때마다 알림을 제공한다. 홍 대표는 "등기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긴 어렵다"며 "알림제공과

함께 필요시 변동사항을 이미지로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맞춤형 대출 안내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분류되며,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앱을 통해 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소득과 나이, 가족구성원 유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자녀특례는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는 무관하게 대출한도와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銀-네이버페이 제휴통장 한정 판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네이버페이와 제휴 출시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100만자로 한정해 추가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선불 충전금인 네이버페이 머니를 은행 계좌에 보관해 이자와 네이버페이 결제에 따른 포인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계좌 개설 좌수 한도 50만좌가 완판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통장의 재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혜택도 강화했다. 최대 연 4%로 금리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치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존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네이버페이 온라인 결제 시 최대 3% 포인트 적립(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동시 이용 시 최대 7%) ▲현장 결제 시 2배 적립(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동시 이용 시 4배)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 이용 시 1.2%에 해당하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월 최대 1만원) 등 적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출금통장에 200만원 예치 시 연간 최대 8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적립 역시 매월 30만원 결제 시연간 최대 10만8000의 혜택으로 다른 결제 수단 대비 3배에 가까운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더리움 노드 탈중앙화로 사용자 접근성 높여야”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KBW 2023 '임팩트' 온라인 강연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이더리움이 당면한 문제는 노드(서버)의 중앙화"라며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하기 쉽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테린 창시자는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 (KBW 2023) 메인 행사인 '임팩트 (IMPACT)'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부테린 창시자는 "노드 탈중앙화라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 (KBW 2023) 메인 행사 '임팩트 (IMPACT)'에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온라인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6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는 노드 운영에 있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으로 '스테이트리스'도 중요한 퍼즐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스테이트리스는 노드를 운영할수록

데이터 역시 쌓여 부담이 커지게 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안한 방법이다.

부테린 창시자는 "장기적으로 히스토리(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니페스트 등의 것들을 다른 포털 네트워크에 저장해 노드를 운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히스토리 저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더리움을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할 것으로 이더리움이 더욱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탈중앙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